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 치료제·백신 비임상 결과 발표

"유코백19, 변이주 대응효과 우수"

베타·델타 변이주 공격 100% 생존
2,4주차 높은 수준 중화항체 유지
"유니버설 백신 개발 가능성 확인"

'유코백-19' /유바이오직스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전임상에서 변이주 방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변이주 대응 비임상 효력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임상은 초기 바이러스인 우한주 항원인 '유코백-19'와 이 외 변이주 항원인 '유코백-19-SA' 두가지를 사람 형질전환 쥐에 투여해 우한주와 베타형(남아공 변이), 델타형(인도 변이) 변이주에 대한 방어효능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두 가지의 후보 백신을 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한 후, 2일차, 4일차 및 14일차에 각 그룹의 활동성과 생존률, 바이러스 및 항체역가, 장기무게 및 조직병리 소견을 검토했다.

임상 결과, 각 후보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는 바이러스 공격 후에 대조군에 비해 체온, 활동성, 생존율, 장기무게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됐다. 특히 베타, 델타변이주 공격에 대해 100% 생존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후보 백신을 접종한 후 2,4주차에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가를 유지했다. 공격 후 2,4일차 폐 조직에서 각각의 공격 바이러스는 대조군에 비해 백신접종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각 변이주에 대한 방어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병리소견에서도 각 장기는 대조군 대비 차이가 없었으나 폐 조직에서의 염증, 부종 및 혈관 정도 등에서 매우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변이주 비임상 효력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로 보아 현재 임상 2상 중인 유코백-19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99% 이상에서 발견되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변이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백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욱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국제방역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임상 시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서울대 수의대와 연세의대 공동)의 위탁연구로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서식품 "카누 구매 하시면 아웃도어 굿즈 드려요"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은 카누 발매 10년을 맞이해 인스턴트 원두커피 '맥심 카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맥심 카누 패들 포인트 프로모션'을 14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가운데, 캠핑·피크닉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기획됐다. 카누 제품을 구매 시 부여되는 '패들 포인트'를 모으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캠핑 및 문화생활 굿즈를 제공한다. /동서식품

이대목동병원 간염환자 간암 예측 '플랜-B' 개발

AI 활용 독창적 예측 모형 개발

이대목동병원은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사진)가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암발생을 예측하는 모형 '플랜-B(PLAN-B)'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성B형간염은 국내에서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간암의 주요 원인이다. 만성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은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40~60대에서 매우 심각한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치료가 보편화된 지금도 여전히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암 예측과 대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김휘영·이정훈 교수 연구팀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국내 18개 기관 및 유럽과 북미 등 11개 기관에서 총 1만 3508명의 B형간염 환자 자료를 분석, 이를 인공지능(AI) 기반의 기계학습에 적용해 간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 'PLAN-B'를 개발했다.

'PLAN-B'는 예측 정확도가 기존 예측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 실제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웹 기반의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간암 위험도를 제공,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료와 환자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휘영 교수는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간암 예측 모형을 개발했고, 동서양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유용성이 검증돼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지닌다"며 "PLAN-B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들뿐 아니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환자를 식별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위장관질환 신약 美 임상2상 돌입

'PCS12852' 안전성·특성 평가
국내서 장운동 개선 효과 확인

유한양행이 개발한 위장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이 미국에서 임상2상에 돌입한다.

유한양행은 기술수출 파트너사인 미국 프로세사 파마슈티컬즈에서 지난 9월 제출했던 기능성 위장관질환(GI) 치료제 후보물질 'PCS12852'의 미국 내 임상 2a상(임상 2상 전기) 임상시험계획(IND)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PCS12852는 기능성 위장관질환(GI) 치료제 후보물질로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합성신약이다. 5-HT4 수용체에 우수한 선택성을 보이는 작용제로, 국내에서 전임상 독성, 임상 1상 시험을 마치고 지난해 8월 프로세사에 기술이전 된 바 있다.

5-HT는 위장관의 운동과 감각능력, 분비 등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장의 장크롬친화성 세포에서 합성, 저장, 분비가 이루어진다. 5-HT의 수용체로는 여러 수용체가 알려져 있으며, 이 중 특히 5-HT4 수용체가 장의 운동 및 감각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세사의 이번 임상2a상은 중등도 에서 중증 단계의 위무력증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PCS12852의 안전성, 내약성, 및 용량에 따른 약동학적 특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조건으로 진행한다.

위무력증은 위 배출지연을 특징으로 갖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 약한 근육수축으로 인해 음식물이 오랜 기간 위에 정체하게 되면서 십이지장쪽으로 넘어가는 증상을 겪게 된다.

이는 미주신경을 포함한 신경계 기능을 억제하게 되고, 매스꺼움, 구토, 복통, 복부 팽창 등을 느끼게 되는 질병이다. 미국에만 매년 4% 정도의 인구가 앓고 있는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PCS12852의 상업화 성공 시 큰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PCS12852 물질은 국내 전임상 독성, 임상1상을 통해 심혈관 부작용 없이 우수한 장 운동개선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기에 이번 미국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블랙야크-레이팜, 반려동물 시장 진출

신사업 시장 개척 업무협약

비와이엔블랙야크가 레이팜코리아와 손잡고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한다.

블랙야크와 레이팜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양재사옥에서 반려동물 신사업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블랙야크와 레이팜은 코리아펫쇼 박람회에서 3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반려도어(반려인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1년여 간 반려동물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펴왔다.

시범 출시된 반려도어 제품은 반려동물의 털이 붙더라도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대전방지 도전사'가 적용된 아웃도어 의류 제품으로, 반려동물의 오물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땀 배출과 공기순환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

블랙야크가 레이팜과 반려동물 신사업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 이승준 레이팜코리아 사장. /비와이엔블랙야크

이 기간 양사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커플룩, 시밀러룩 등으로 반려도어 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 '반려도어'가 반려인 뿐만 아니라 수의사, 애견미용사와 같은 반려동물 시장 종사자에게도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반려인을 위한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넘어서 반려동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의류와 용품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반려도어, 펫티켓 캠페인을 이끌 수 있는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동국제약, '콜라겐 사이언스 RX' 론칭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 출시

동국제약이 프리미엄 콜라겐 브랜드인 '콜라겐 사이언스 RX'를 론칭하고,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을 출시한다.

'콜라겐 사이언스 RX'는 피부 건강의 핵심 원료인 콜라겐과, 동국제약의 피부과학 기술력이 응집된 병풀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합 설계하여 아름다움을 만드는 공식을 제안한다는 콘셉트의 프리미엄 콜라겐 브랜드이다.

'콜라겐 사이언스 RX' 브랜드로 처음 출시된 '프리미엄 콜라겐 앰플'은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과 피부 보습 등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으로, 피쉬콜라겐펩타이드 1일 섭취 최대 함량인 3270㎎이 들어 있다. 특히, 순도 100% 어린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한 저분자 콜라겐으로 흡수율을 높인 액상형 제품이다.

또 동국제약에서 독자 연구 개발한 프랑스산 병풀추출물이 1만ppm 함유되어 있으며, 착색료, 보존료 등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콜라겐과 병풀추출물 외에도 엄선한 주원료와 부원료를 한 병에 가득 담아 에너지, 항산화 관리까지 도와 주고, 사과 농축액이 함유되어 깔끔한 맛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허문 ETC본부장 영입

GC녹십자는 허문(48·사진) ETC본부장(상무)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신임 본부장은 한국얀센, 한국애보트 등 글로벌 제약사의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19년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국가별 영업 부문장을 역임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영업 부문의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ETC 부문 전문가를 영입했다"며 "글로벌 제약사에서 쌓은 허문부장의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이해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